

제11회 대한민국 호국 미술대전

The 11th
KOREA
HOGUK
ART
EXHIBITION

서울 전쟁기념관

9.15.^{Wed} — 9.26.^{Sun}

대전 대전청사전시관

9.29.^{Wed} — 10.17.^{Sun}

춘천 국립춘천박물관

10.20.^{Wed} — 10.31.^{Sun}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11.3.^{Wed} — 11.14.^{Sun}

양구 양구인문학박물관

11.17.^{Wed} — 12.12.^{Sun}

천안 독립기념관

12.15.^{Wed} — 12.26.^{Sun}

주최 / 주관

 육군본부 /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조직위원회

후원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설립 한국사진작가협회  kecd
(사)한국현대디자인협회

제11회

대한민국

호국

미술대전

The 11th

KOREA

HOGUK

ART

EXHIBITION

목차

인사말004

대상011

최우수상015

우수상023

장병우수상043

특선051

입선065

운영위원 및 초대 · 추천작가 작품107

심사평125

수상작품 설명129

조직 · 운영 · 심사위원142

추진경과143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육군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미술협회, 한국서예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
현대디자인협회 등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국민과 군 장병에게 국가안보와 호국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예술작품을 통해
모두가 소통·화합할 수 있는 육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호국미술대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더욱 값진 행사라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작가들의 ‘호국’과 ‘안보’를 주제로 한 회화, 서예, 디자인, 사진, 조소, 문인화 등 6개 분야 예술작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국민과 장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상작들은 서울 전쟁기념관을 시작으로 대전청사전시관, 국립춘천박물관,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양구
인문학박물관, 천안 독립기념관 등을 순회하며 전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육군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 9. 15.

육군참모총장 대장 남 영 신

국민과 육군이 함께 만들어 낸
문화예술의 대제전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2011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어느덧
10주년이 되었고, 올해 11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호국미술대전을 위해 애써주신 각 후원협회 이사장님과
운영위원,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호국미술대전에 참가해 주신 작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미술대전은 육군이 국민과 더욱 친밀하게 호흡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해온 진중창작품 공모전을
전 국민까지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일상을 감동과 풍성함으로 채워주고,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창조적 삶을 위한 풍부한 상상과 영감을 자극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도 되었지만, 올해 호국미술대전은 더 많은 작가분들이 더 좋은
작품을 통해 ‘국민과 육군이 하나되는 문화예술의 대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함승민 작가의 ‘코로나19 속으로’는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방역작전을 펼친 육군 장병들을 표현한 수작입니다. 또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작품, 독립군부터 국군까지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성을 표현한
작품 등 ‘호국을 그리다, 그리고 지키다’의 콘셉트에 부합된 작가들의 혼과 열정, 창의성이 담긴 최고의
작품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작가들의 혼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관람하시면서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국민과 육군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는
호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과 장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21. 9. 15.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장 준장 노 재 천

예술로 하나된
대한민국 국민과 육군의 만남
「호국미술대전」을 경축하며



절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호국과 안보를 소재로 미술을 통하여 특별한 소통의 공간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군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공모전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뜨거운 관심과 좋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어 양과 질적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출품 작품마다 작가의 나라사랑과 혼을 쏟아부은 열정은 보는 이에게 떨림이 있는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호국과 안보의 주제처럼 문화예술의 힘과 가치를 통하여 강인한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있기에 이 땅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고 문화 예술계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무거운 시기에 문화예술을 통하여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번 호국미술대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을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든 시기 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욱 이 순간에 행복해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그 행복과 감사함을 오늘 수상의 기쁨으로 맞이하신 모든 작가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호국미술대전을 위해 애쓰신 김광식 중령님을 비롯하여 호국미술대전에 좋은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작가님들과 이러한 뜻깊은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해주신 육군본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을 선도하는 호국미술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1. 9. 15.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 광 수

말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호국’
국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호국미술대전은 모두의 자산



입추가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잠자기도 수월해졌습니다. 역시 절기의 순환은 어김없이 질서 있게 찾아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역경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에서 대상 수상 작가를 비롯한 최우수상, 우수상, 특선 그리고 입선의 영예를 차지한 모든 입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록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호국미술대전에 출품한 모든 작가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호국과 안보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물샐 틈 없이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처지는 다르지만 말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우리 모두의 큰 자산입니다. 출품한 작품들을 통하여 국민과 군이 더욱 소통하고, 교류하며, 포용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심사 과정이 매우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는 모든 미술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크게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토록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성공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육군본부의 두텁고 확실한 지원과 미술계 모든 단체장들의 열과 성을 다한 협조와 호국과 안보의식이 충만한 출품 작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의 금자탑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준비하시고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육군본부 관계자분들과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15.

(사)한국서예협회 이사장 김 기 동

예술을 매개로 한
국민과 군軍의 만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육군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겪을 때마다 가장 앞에는 언제나 우리 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자랑스럽고 멋진 육군의 모습을 예술을 통해 기록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 호술미술대전에
함께 할 수 있어 더 없이 큰 영광입니다. 이번 11회 호국미술대전에는 어제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주셨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생존해 계시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분들까지 다양한 모습이
담긴 훌륭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사진이 단순히 사실전달의 매체를 넘어 그것을 관람하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만나고 감사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음에 사진인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
주신 장병 여러분과 우리나라와 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우리 육군과 국민이 예술을 통해 함께하는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이 끊임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육군본부
관계자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1. 9. 15.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김 양 평

호국미술대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빛나는 「호국미술대전」을 위해
다함께 전진합시다!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창의적인
미술작품 활동이 위축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호국과 안보’, ‘강한 육군’ 등을 주제로 국민과 소통하고 육군의
정신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한 국민과의 화합의 장으로 매우 중요한
예술 창작활동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회 호국미술대전에 출품해주신 육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좋은 작품들로
수상을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입상하진 못했지만 호국미술대전에 참여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품 작품 분야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대한민국과 육군을 향한 사랑과 호국정신을 표현한 창의적인
작품들이 매년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호국미술대전을 준비하고 참여
하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이번 호국미술대전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창의적인 작품으로 육군과 국민이 소통하는 것에 한국현대디자인협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
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 9. 15.

(사)한국현대디자인협회 회장 유 윤 호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大賞 대상

회 화 함승민

대상

회화

함승민

코로나19 속으로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最優秀賞 최우수상

회 화 고은정

디자인 김민지

사 진 원사 권영덕

조 소 병장 김우재

서 예 조득임

문인화 이미경

최우수상

회화



고은정
호국의 열매

최우수상

디자인



김민지
고맙군! 든든하군!

최우수상

사진



원사 권영덕(제6보병사단)

장전

최우수상

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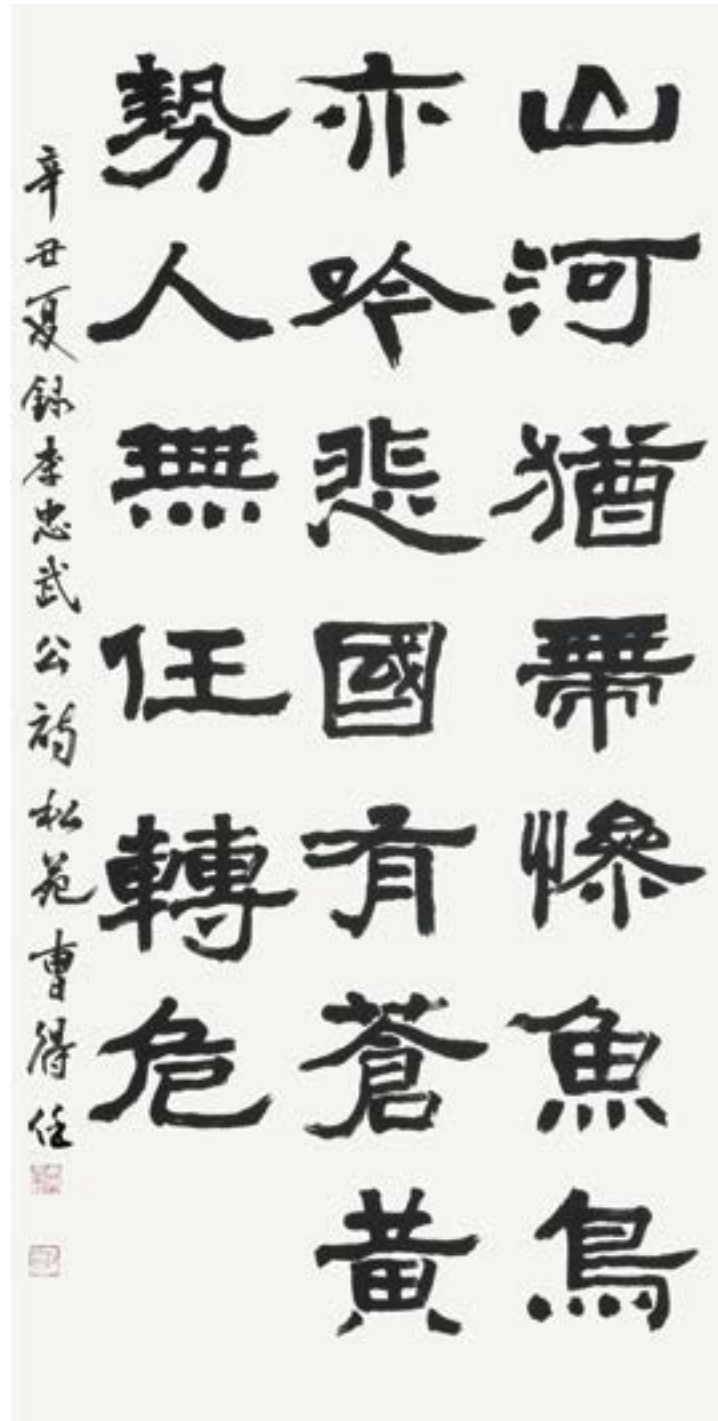


병장 김우재(제39보병사단)

극복의 민족

최우수상

서예



조득임

이충무공 시

최우수상

문인화



이미경

이름없는 용사들의 진혼곡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優秀賞 우수상

회 화 강경애 민세홍 이광용

디자인 김정민 서 필 전보민

사 진 4급 김경호 이희열 정국희

조 소 김예지 김한샘 최윤호

서 예 김류희 성계자 하인순

문인화 박재형 배명자 이인숙

우수상

회화



강경애
호국영봉



상병 민세홍(제11기동사단)
이어달리기



이광웅
보루

우수상

—

디자인



김정민
육군,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상병 서 필(제6군단)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과 의료진



상병 전보민(제6군단)

그들의 의지

우수상

—

사진



4급 김경호(육군본부)

호국영령을 위한 포성



이희열

강한 육군



정국희
애국정신

우수상

—

조소



김예지
애국을 가슴에 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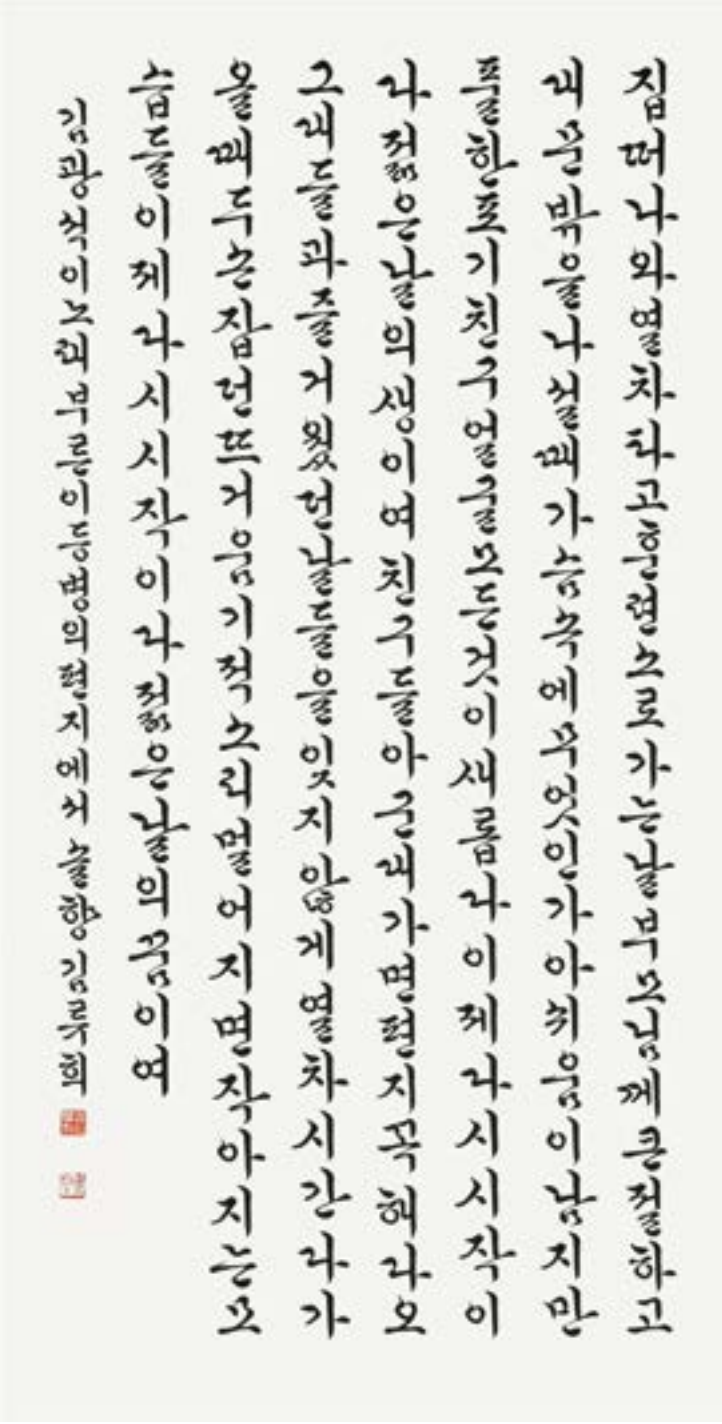
김한샘
수호守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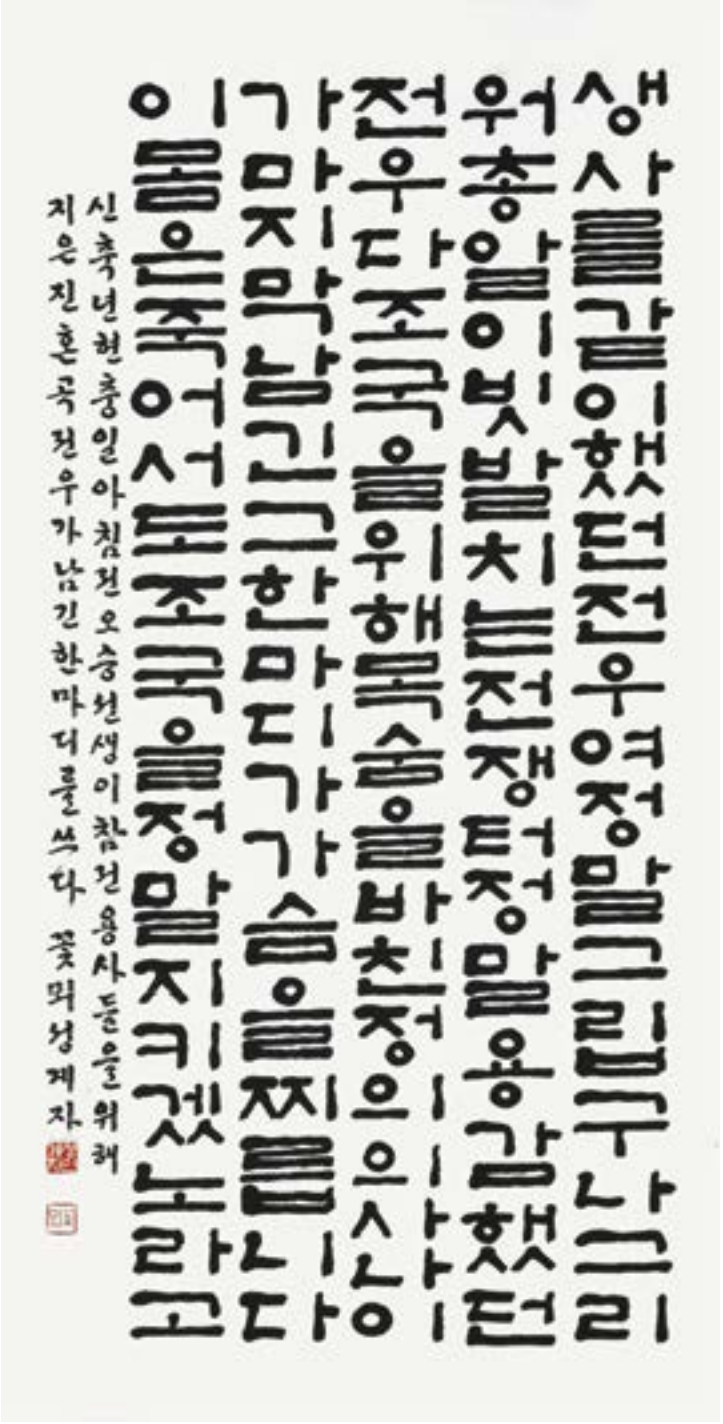
상병 최윤희(제6보병사단)
발자취

우수상

서예



김류희
이등병의 편지



성계자
전우가 남긴 한마디



하인순
채근담

우수상

문인화



박재형
통일이 오는 그날



배명자
비핵화속에 평화통일



이인숙
포도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將兵優秀賞 장병우수상

회 화 일병 양준혁

디자인 일병 노기민 일병 이현호

사 진 소령 김현우

조 소 일병 강현삼

서 예 5급 윤송섭

장병우수상

회화



일병 양준혁(제2신속대응사단)

회원

장병우수상

디자인



일병 노기민(제8군단)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새긴 국가방위의 중심군, 대한민국 육군

장병우수상

디자인



상병 이현호(제37보병사단)
잊지 말아야 할, 잊어서는 안되는 그들

장병우수상

사진



소령 김현우(제35보병사단)
고지 점령

장병우수상

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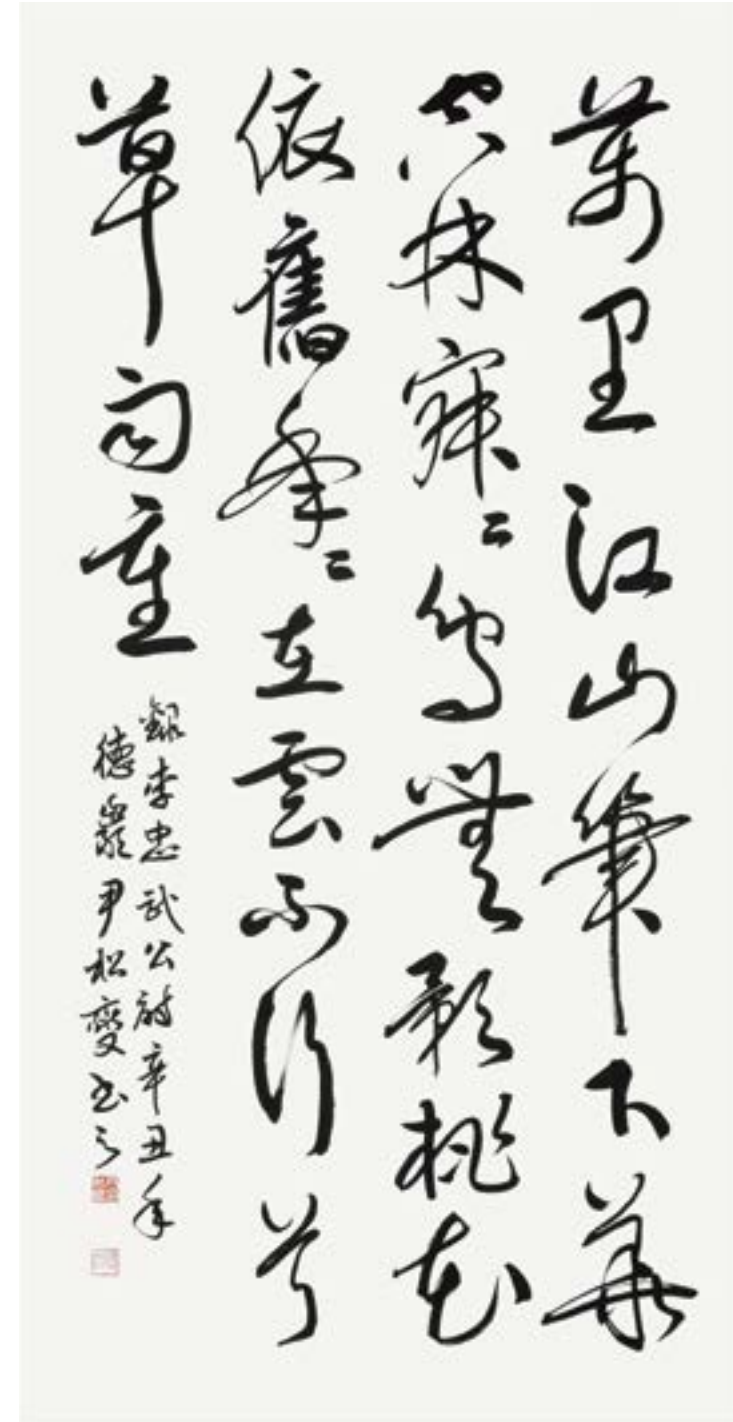


일병 강현삼(제5보병사단)

계승

장병우수상

서예



5급 윤송섭(제31보병사단)

이충무공 시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特選

특선

- 회 화

김민지 상병 김찬호 윤정원
임수연 병장 정원영 조주광
형내인
- 디자인

7급 강승민 고예슬 박소은
손동욱 이서연 장진희
상병 조민준
- 사 진

권덕주 김옥숙 중사(진) 노현진
대위 문창원 중사 박정현 하사 안은이
소령 옥동인
- 조 소

김동열 상병 김병철 상병 이진구
최효령
- 서 예

김해정 김혜민 류승주
박영옥 송석운 이수범
최현규
- 문인화

김덕자 김미정 김성원
박윤희 박차련 안홍란
이용규

특선

회화



김민지
필승의 신념



상병 김찬호(제3보병사단)
청춘, 군인이 되다



윤정원
오롱폭포



임수연
그곳에 가면



병장 정원영(제50보병사단)
영웅 : 서로의 위치에서



조주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형내인
orange phosphorous #18

특선

디자인



7급 강승민(제2군수지원여단)
가슴에 늘 새기는 대한민국



고예슬
당신이 피워낸 꽃



박소은
책 대신 총을



손동욱
가장 값진 메달



이서연
365일 우리를 지키는 호국정신



장진희
늘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



상병 조민준(제53보병사단)
내일이 더 강한 육군

특선

사진



권덕주
위장



김옥숙
전우야



중사(진) 노현진(탄약지원사령부)
묵념 : 말없이 맘속으로 뵈



대위 문창원(제3보병사단)
노병은 죽지 않는다



중사 박정현(국군지휘통신사령부)
걸바속촉



하사 안은이(공군 16전투비행단)
임전무퇴



소령 옥동인(제1기갑여단)
대한민국은 우리가 수호한다!

특선
—
조소



김동열
충성

상병 김병철(제2공병여단)
영웅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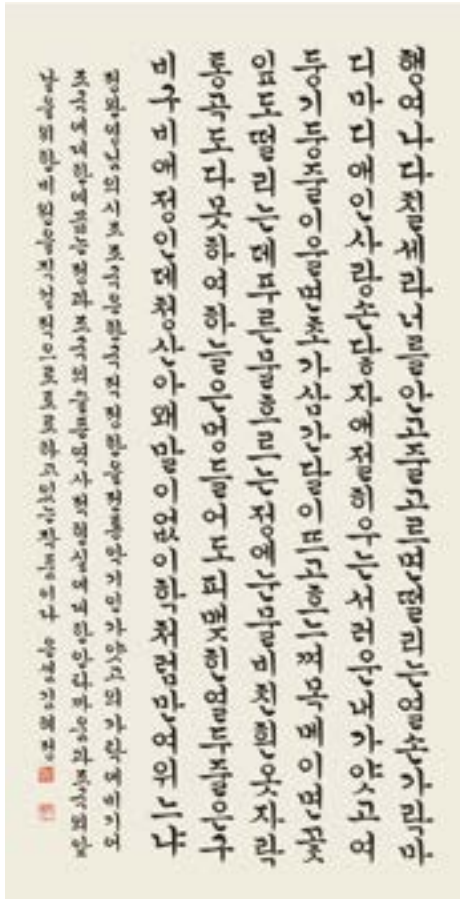
상병 이진구(해병 6여단)
가족의 품으로



최효령
우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증거

특선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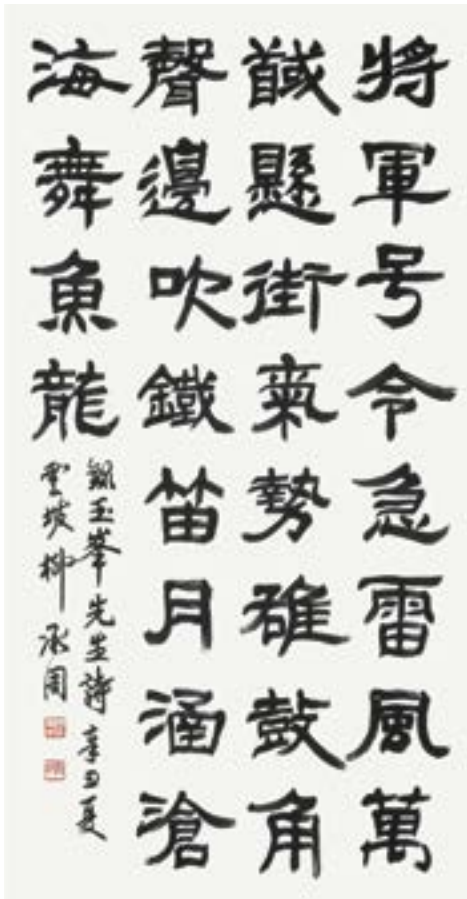
김해정

조국 - 정완영



김혜민

우제 - 윤두서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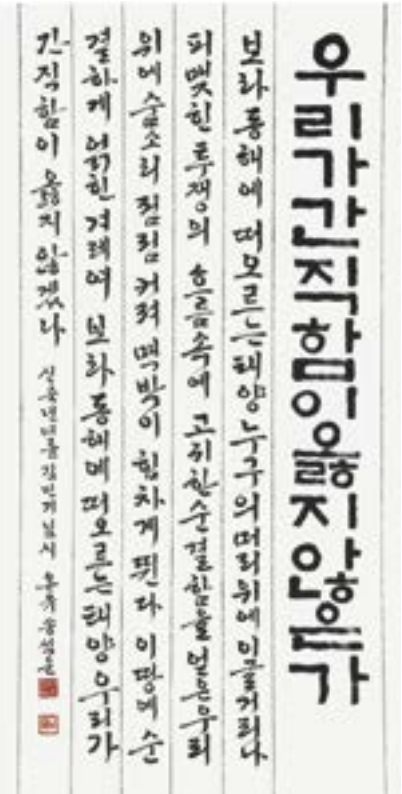
류승주

증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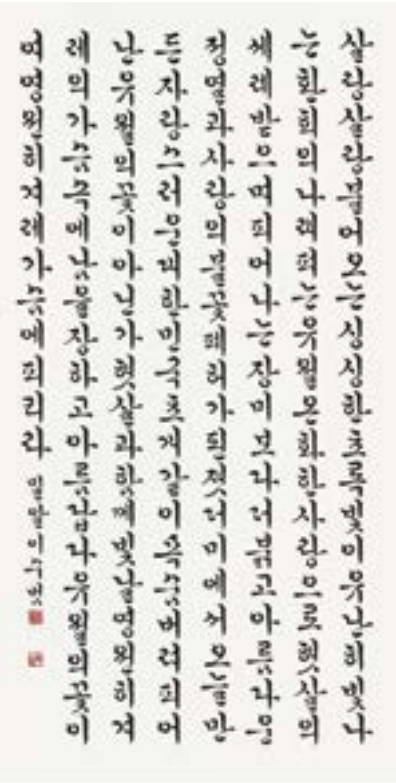
박영욱

목멱석봉(나무재의 저녁봉화)



송석운

내나라 내거레(김민기)



이수범

유월의 꽃은 핀다



최현규

역동한국

특선

문인화



김덕자
입춘



김미정
묵매화



김성원
청포도



박윤희
매화



박차련
대나무



안홍란
가을빛



이용규
대나무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入選

입선

회화

상병 고우석 고정민 일병 김기민 대위 김성민 김예지 김윤경 김종선 김홍구
민윤경 박나원 원사(진) 배향숙 백남기 병장 서성우 이건택 일병 이성건 이옥희
이은선 이정영 일병 이형진 장임순 정슬기 일병 정우형 정유진 정일용
상병 차무영 최은실 허 존 황종현

디자인

병장 강동구 일병 강석규 강예은 김다은 김명준 상병 김성민 병장 김세진 김영선
상병 김재섭 상병 김정훈 김하영 마승아 박성진 병장 박오삼 박요섭 박은지
서동호 성민규 송우태 병장 신기정 안시편 중사 안현우 중사 이건희 일병 이동휘
이성재 이세영 이재현 대위 이찬흠 이하민 상병 이호민 임경섭 하사 전운환
전찬우 상병 정승우 정하은 상병 조몽주 차동훈 최기현 상병 탁호영 한명훈
상병 홍두의 황정순 황지연

사진

대위 강태권 대위 강태연 중사 권경현 상병 권정엽 김광열 중사 김병수 김성혜 대위 김윤희
중사 김은혁 소령 김의인 상병 김태원 상사 류광수 류중석 박진규 중사(진) 방우석
대위 서승철 상사 서지훈 소령 소요한 중사 손미연 하사 신재우 중사 엄재훈 중사(진) 오요섭
일병 유수환 하사 윤우경 이근형 대위 이기명 하사 이선종 소위 이소은 병장 이재환
중사 정성진 하사 조지수 최미숙 중사 최영운

서예

고옥희 김기후 김미숙 김선탁 김진혁 김향수 김홍락 류수영
서동찬 성민혜 안남홍 양찬호 양현석 위진아 유형목 윤명옥
윤여진 이미화 이영숙 이용아 이우규 이윤숙 이은정 이인덕
이주탁 이준민 이창호 인연환 임수정 임지영 장영아 전중석
최영연 최인규 홍영택 황철중

문인화

김지아 도이지 박대곤 박철규 손정숙 송선화 우태권 이윤섭
이정숙 정희용 조미경 조미선 채영희 최흥숙

입선

회화



상병 고우석(제1포병여단)

다짐 - “호국”



고정민

첨단 과학과 융화된 미래 육군



일병 김기민(제3공병여단)

경계근무



대위 김성민(동원전력사령부)

평화와 번영을 짊어지다



김예지

대한민국 꽃 피우라



김윤경

행복한 휴일



김종선

한설



김홍구
삼척서천 산하동색



민윤경
힘



박나원
기억하리오



원사(진) 배향숙(제6보병사단)
용문산전투의 영웅들(부제 : 꽃길만 걷게 해줄게)



백남기
존경심을 담아



병장 서성우(제27보병사단)
등을 맞대고



이건택
희생정신



일병 이성건(제6보병사단)
숨결



이옥희
북촌일우



이은선
코로나와의 사투 그리고 승리



이정영
호국정신을 기억하라



일병 이형진(제27보병사단)
안육자



장임순
최강 코리아 워리어 플랫폼



정슬기
깃발 - 무운장구 태극기



일병 정우형(수도포병여단)

열도



정유진

조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대한민국의 시간 속에서)



정일용

통일가고



상병 차무영(제5보병사단)

천하무적 상승육군



최은실

석문산



허 존

총성 없는 전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육군소위 이도희)



황종현

비 개인 오후



병장 강동구(제6포병여단)

그대들 여기 있기에 조국이 있다



일병 강석규(제6군단)

꽃말과 약속



김명준

동글동글 육군콘



상병 김성민(제5보병사단)

계승정신, 호국보훈



강예은

QR코드로 국가 안보 인식 철저!



김다은

값진 희생 속에 피어나는 영웅



병장 김세진(제50보병사단)

대한민국의 영웅들



김영선

당신이 있었기에, 당신이 있기에



상병 김재섭(군수사령부)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



상병 김정훈(육군사관학교)

아미타이거, 초월육군!



김하영

튼튼한 우리의 육군(튼튼하군)



마승아

그들을 존경합니다



박성진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병장 박오삼(제9보병사단)

천해중심 일월오봉대한육군도



박요셉

뜨거운 희생정신 우리들 가슴에 새깁니다



박은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발자국



서동호

기억하라 1592(한산섬 달 밝은 밤에1)



성민규

대한민국을 돌리는 호국정신의 힘



송우태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



병장 신기정(제5보병사단)

위국헌신 군인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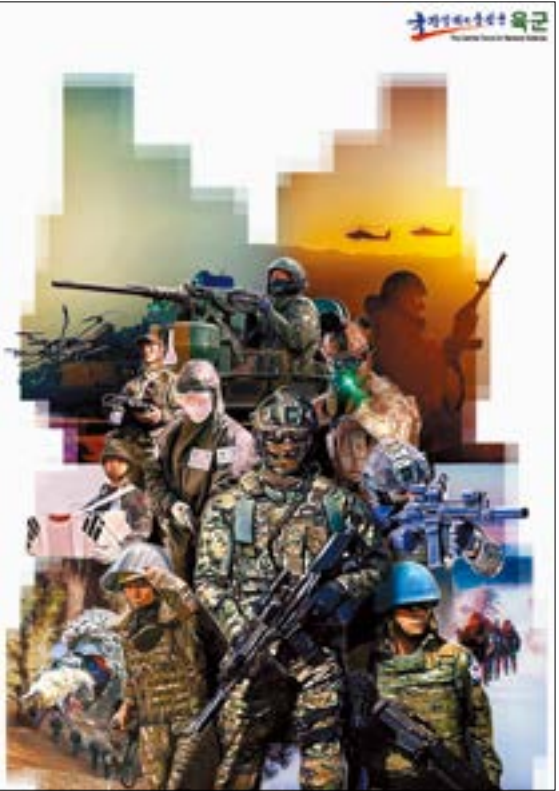
안시편

육군의 미래 백두산 호랑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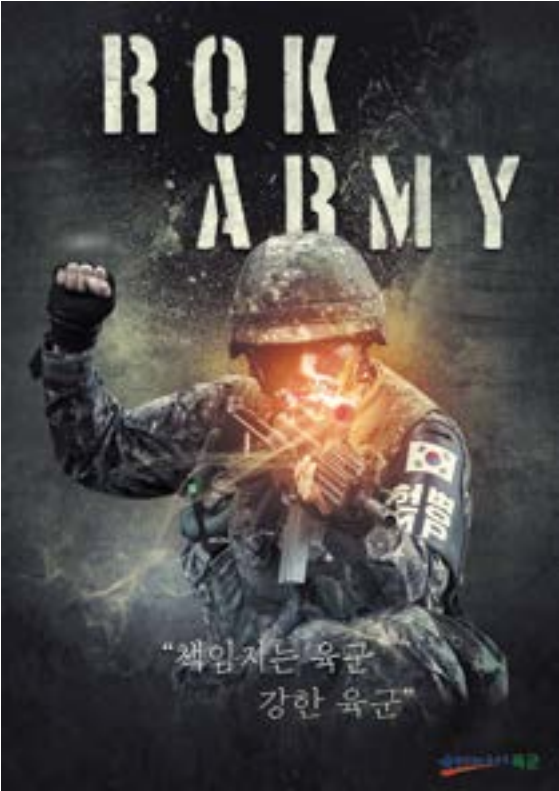
중사 안현우(제17보병사단)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중사 이건희(제5군단)

언제나, 어디서든



일병 이동휘(제35보병사단)

책임완수



이성재
시간과 본분



이세영
항상 굳건한 빗장



이재현
안보, 육군으로부터



대위 이찬흠(제50보병사단)
자랑스러운 그대, 나의 대한민국



이하민
대한민국의 진정한 히어로



상병 이호민(제1기갑여단)
國과 용맹한 호랑이(육군)



임경섭
조국의 방패



하사 전운환(제31보병사단)
오늘의 내가 내일의 대한민국을



전찬우
이 땅을 지키는 수호자 육군



상병 정승우(군수사령부)
우리 호국영웅



정하은
기백氣魄



상병 조몽주(제5포병여단)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차동훈

이어지는 위국헌신



최기현

언제 어디서든 당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병 탁호영(제52보병사단)

위기에 맞서는 육군



한명훈

“같이” 이룬 나라사랑



상병 홍두의(제1포병여단)

우리의 기억



황정순

독립군을 계승한 육군



황지연

무사 귀환을 위하여, 위리어 플랫폼

입선

사진



대위 강태권(제72보병사단)
군인 아버지 고마워요!



대위 강태연(제6공병여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중사 권경현(수도군단)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상병 권정엽(제72보병사단)
육군의 자존심, 포병



김광열
후계자



중사 김병수(제1기갑여단)
전우



김성혜
“무서운 아저씨들~”



대위 김윤호(제23경비여단)
조준



중사 김은혁(제25보병사단)
나아갈 용기



소령 김의인(육군본부)
조국을 지키는 열정



상병 김태원(제39보병사단)
비상하는 육군의 미래



상사 류광수(공군 16전투비행단)
아빠와 함께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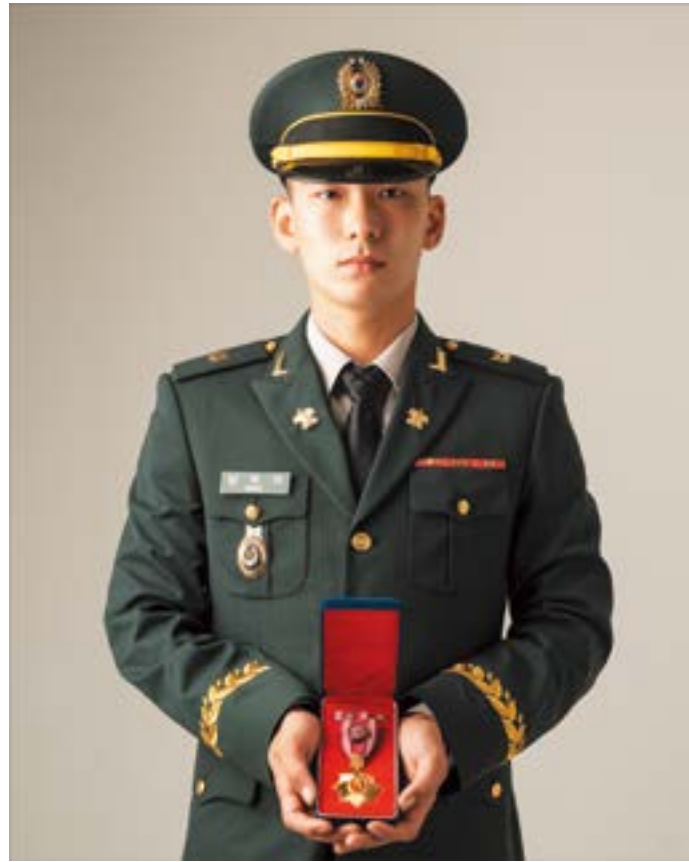


류중석
산악전술 연마



박진규

태극기를 꽃아라



중사(진) 방우석(제28보병사단)

호국 영웅을 찾습니다



대위 서승철(제56보병사단)

육군, 언제나 국민 곁에



상사 서지훈(특수전사령부)

푸른 창공



소령 소요한(제13특수임무여단)

밀어주고, 끌어주는 전우애



중사 손미연(제1기갑여단)

집중함에 담긴 포탄 한 발



하사 신재우(공군 16전투비행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중사 엄재훈(제15보병사단)

출격



중사(진) 오요섭(제5기갑여단)

흐놀다



일병 유수환(제1보병사단)

익숙한 긴장감



하사 윤우경(제28보병사단)

이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근형

일곱빛깔 무지개



대위 이기명(제39보병사단)

모래 폭풍을 넘어 하늘로



하사 이선종(제1보병사단)

떨리는 그 순간



소위 이소은(제7보병사단)

각자의 무기를 들고



병장 이재환(수도기계화보병사단)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중사 정성진(UAE군사훈련협력단)

우리는 팀이다



하사 조지수(공군 16전투비행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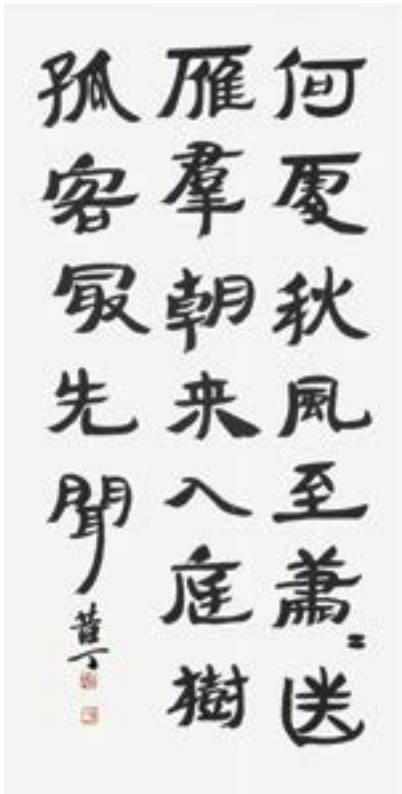
승리의 함성



중사 최영운(특수전사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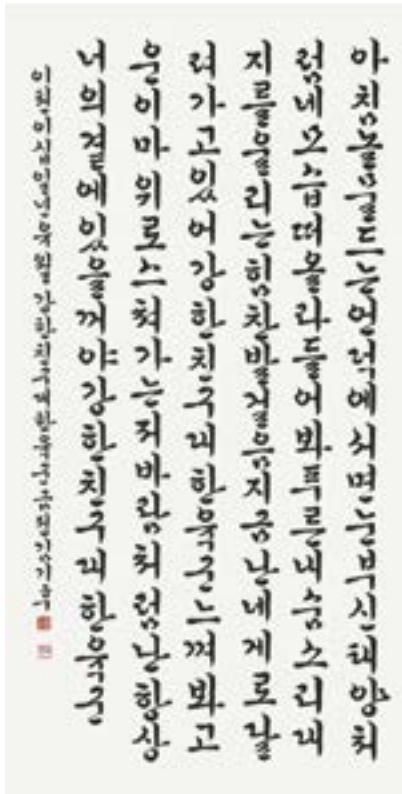
대한민국 생명줄 이상무!

입선
—
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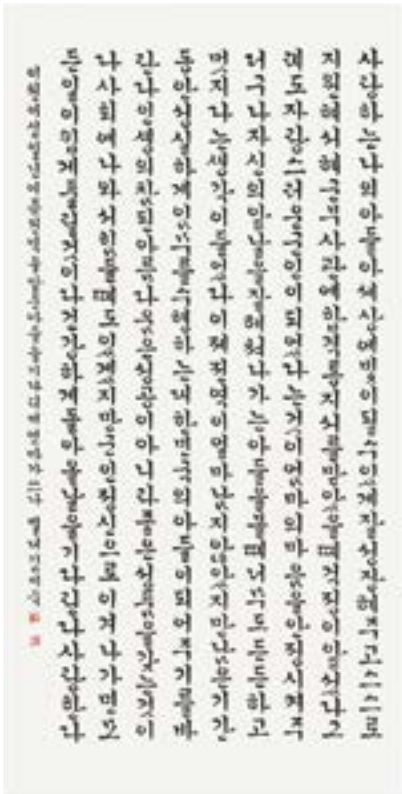
고옥희

추풍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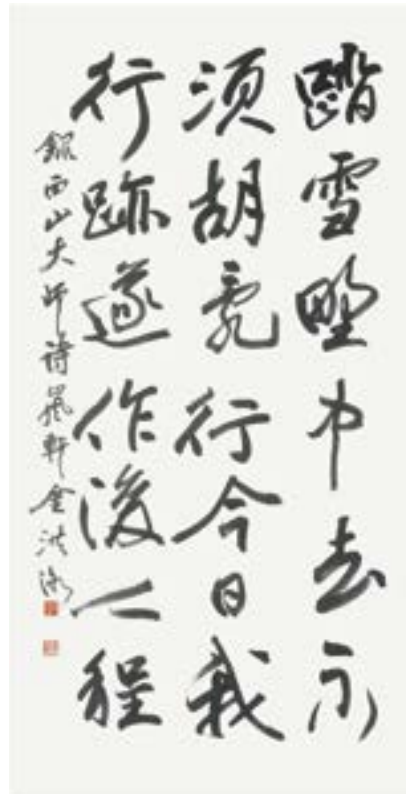
김기후

강한친구 대한 육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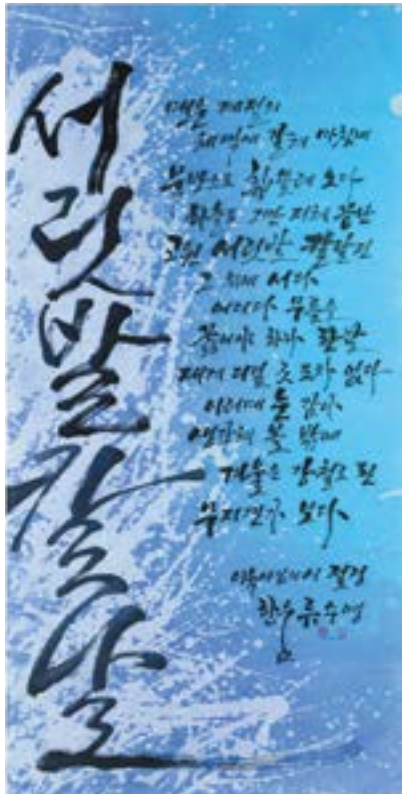
김미숙

전역을 앞둔 아들에게 엄마가



김홍락

서산대사의 시



류수영

절정



서동찬

기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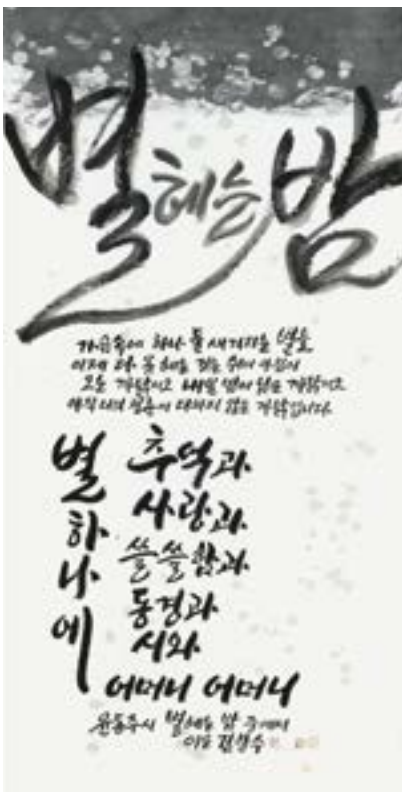
김선탉

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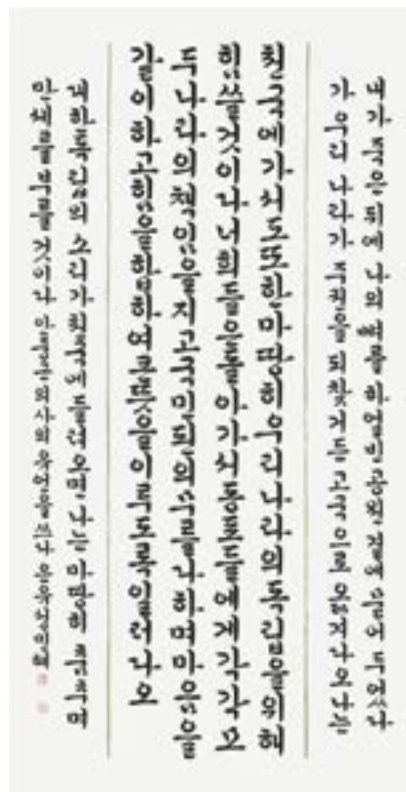
김진혁

대한민국 헌법전문



김향수

별헤는 밤 -윤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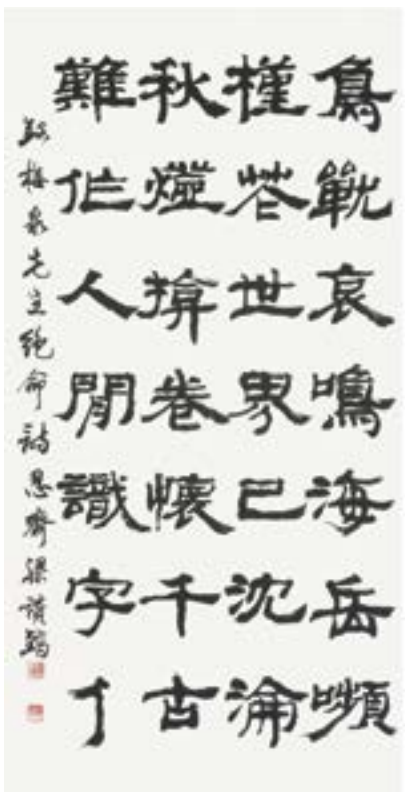
성민혜

안중근의사의 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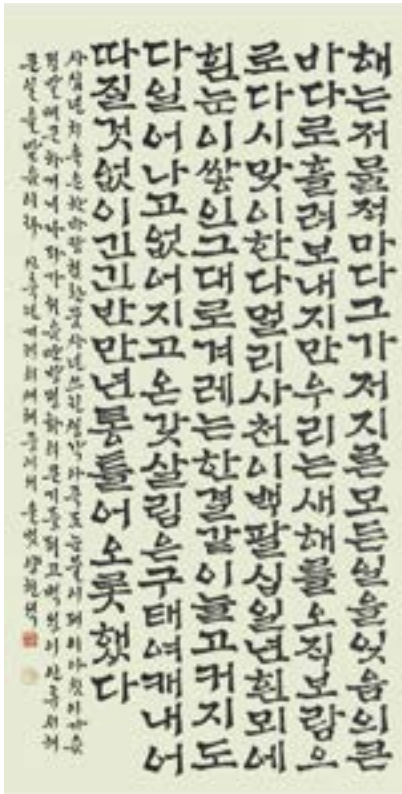
안남홍

춘일즉사 <삼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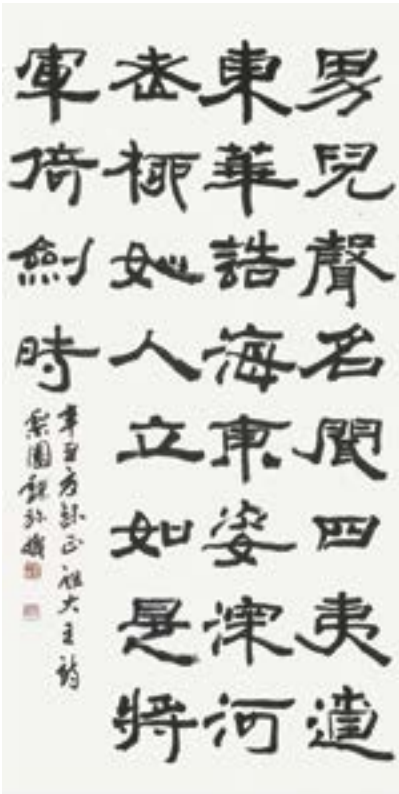


양찬호

절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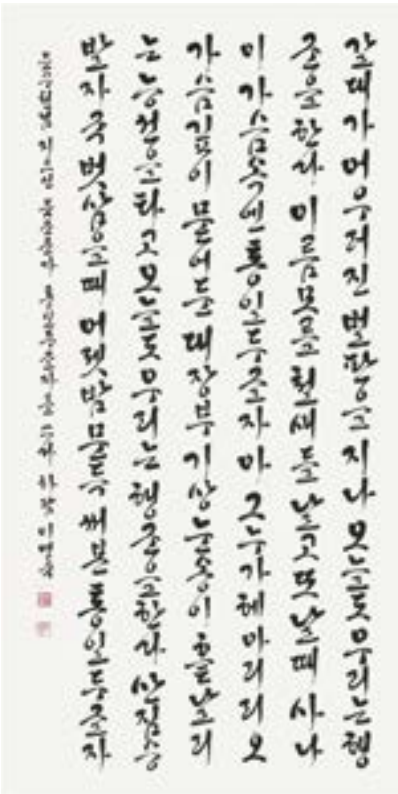
양현석
김영랑님 시 거례의 새해



위진아
충무공 김응하에게 내린 정조 어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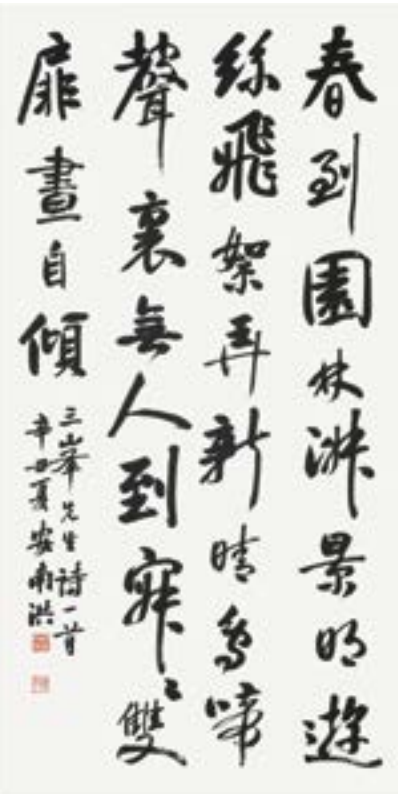
유형목
포저선생 시



이영숙
통일 두 글자



이용아
행군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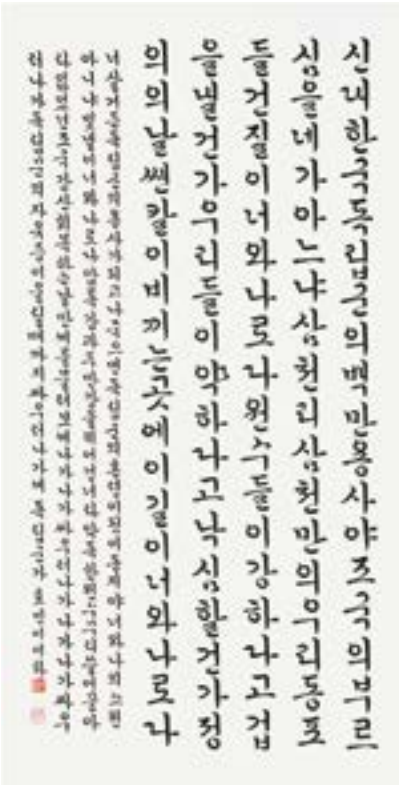
이우규
광개토대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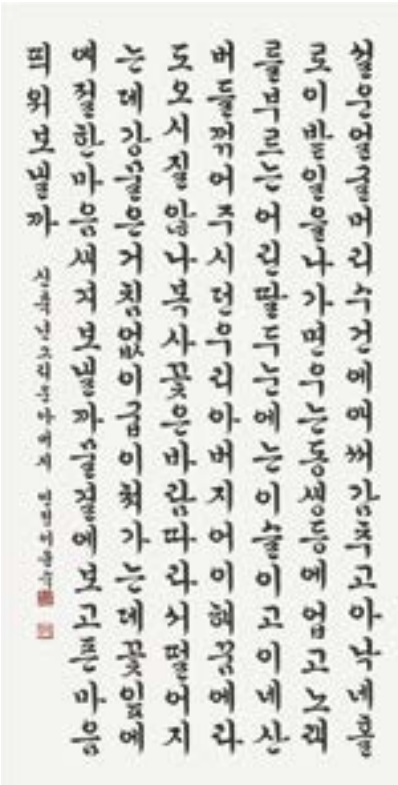
윤명옥
비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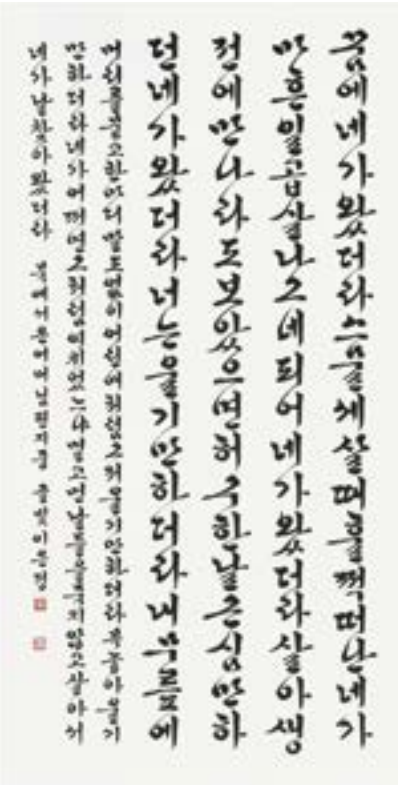
윤여진
안중근의사 시



이미화
독립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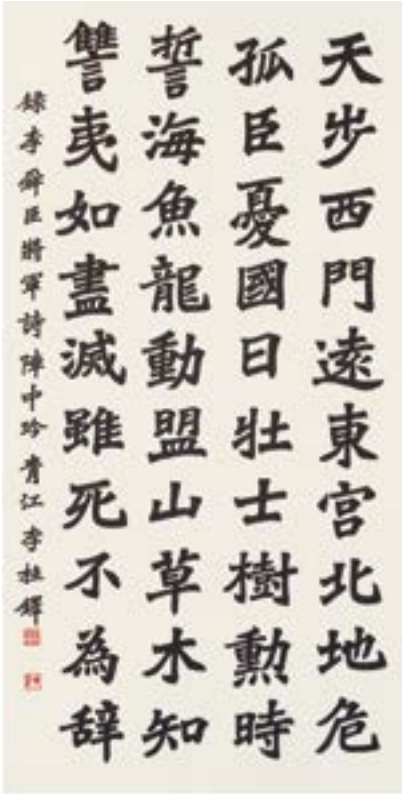
이은숙
강원석 시 그리운 아버지



이은정
김규동님의 북에서 온 어머니 편지 중



이인덕
이충무공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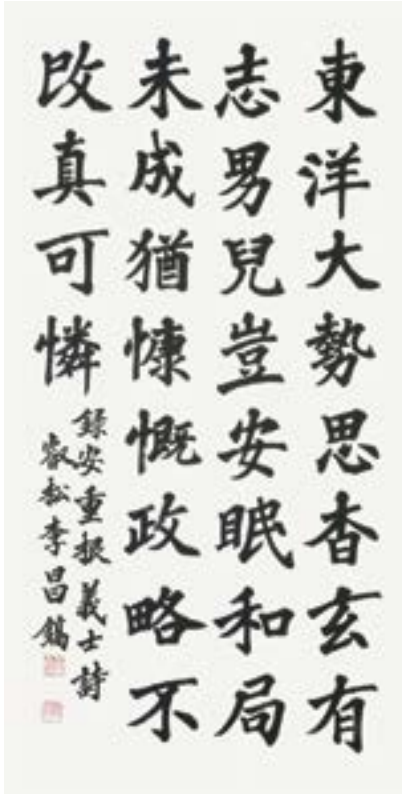
이주탁

이순신장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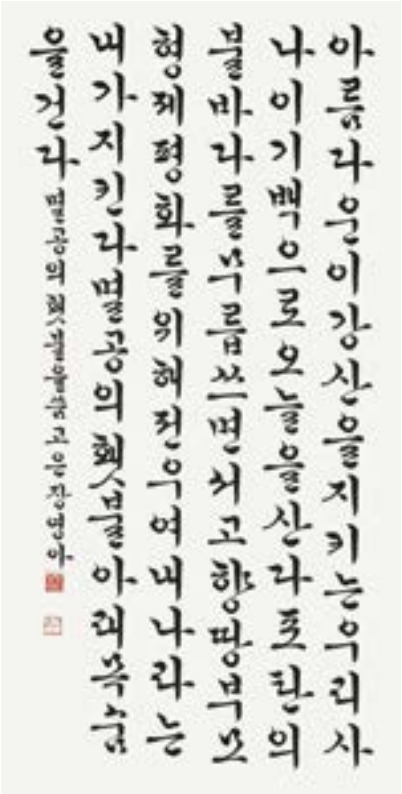
이준민

권영선생 시



이창호

안중근의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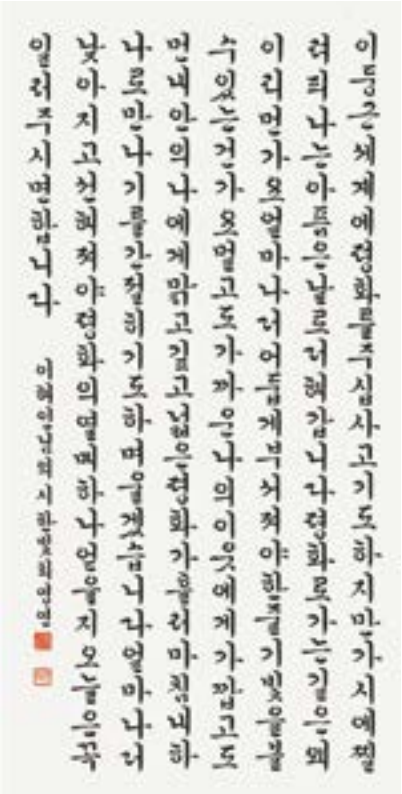
장영아

멸공의 햇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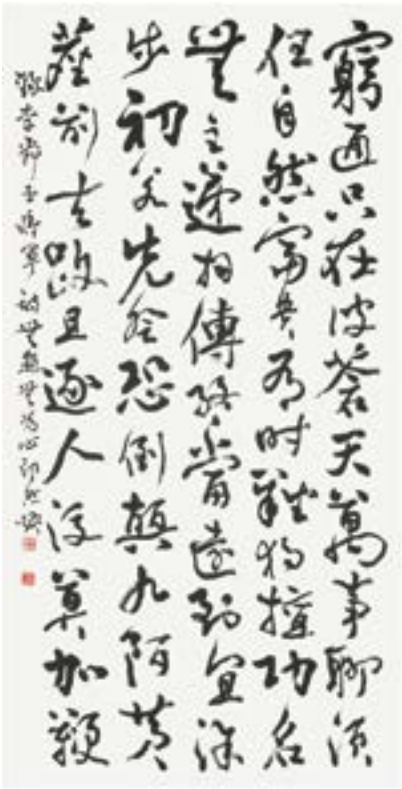
전중석

채근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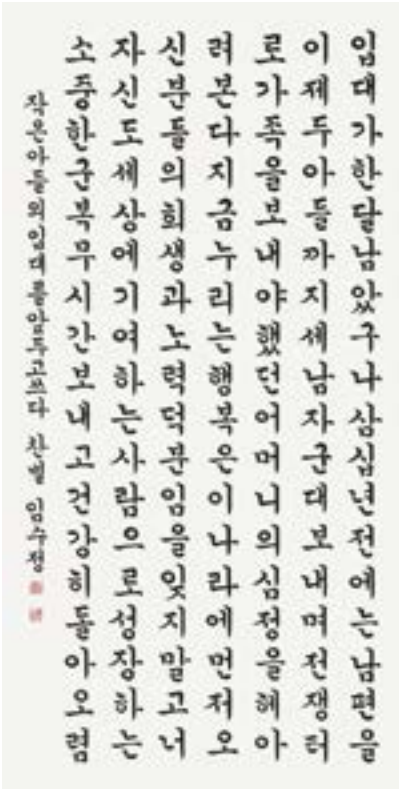
최영연

평화를 위한 기도 “이해인”님의 시



인연환

이순신장군 시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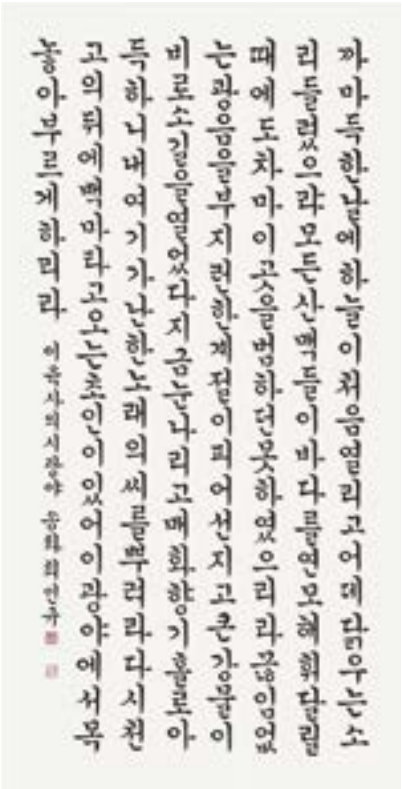
임수정

입대하는 아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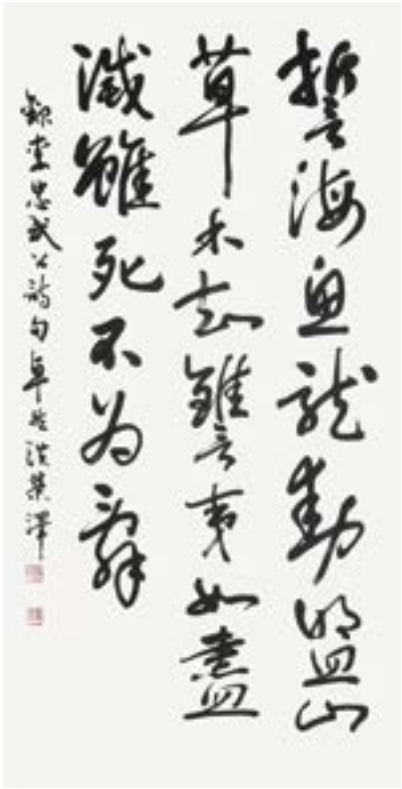
임지영

안중근선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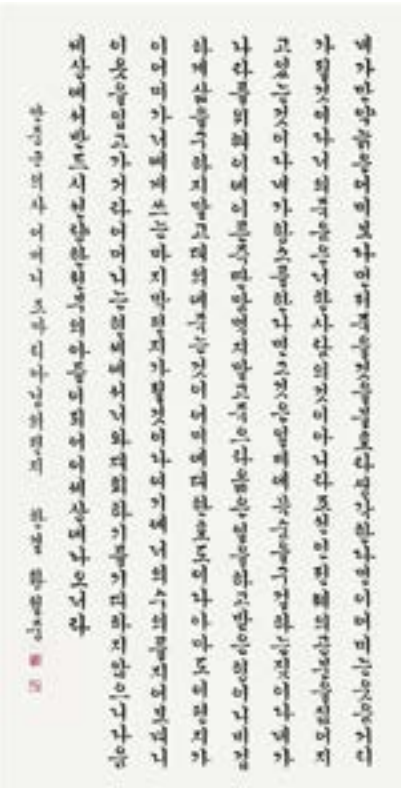
최인규

광야(이육사)



홍영택

진중음



황철중

안중근의사 어머니 조마리아님의 편지글

입선

문인화



김지아
난초



도이지
국화



박대곤
목죽



박철규
목매



손정숙
해바라기



송선화
나팔꽃



우태권
목매



이윤섭
묵죽



이정숙
목단



정희용
파초와 국화



조미경
묵죽



조미선
풍요의 계절(호박)



채영희
목단



최흥숙
감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초대 · 추천작가
작품



박창로
한국화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교육부총리상 수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문체부장관상 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4회심사, 초대작가
개인전 17회(한국, 미국, 일본, 중국) 단체전 300여회
개천, 단원, 경기, 전남미술대전 외 90여회 운영, 심사



임미자
한국화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개인전 16회, 국내 · 외 단체전 및 초대전 450여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 운영 · 조직위원 역임
제14회 대한민국 미술인상(미술문화상)
제5회 2017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 대상
2019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
전)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현)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새봄의 속삭임-2021

한겨울 추위와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난을 통해
호연지기를 키우며 장병들의 군 복무에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축제

부와 재물, 사랑, 화목을 나타내는 해바라기꽃과 좋은 기운을 몰고와
부와 번창을 나타내는 나비, 부엉이가 화면에 어우러져 모든 사람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희망을 불어넣어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렸습니다.



김용모
서양화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개인전 59회, 국내 · 외 단체전 및 초대전 등 700여회
일중한 예술문화 대상
2018년 세계문화예술교류 대상
2017년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대상
2016년 리우 올림픽 초청작가
2016년 세계문화예술교류 대상
현대여성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현대조형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전)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현)국제현대예술협회 이사장



박진현
문인화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한남대학교 조형미술대학원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개인전(15회), 대전시립미술관 초대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 운영위원장 역임
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장 역임
한국예총 대상 수상
대전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미술정책연구소 소장



꽃비가 내리던 날

사는 이야기 - 꽃이 피었네



꿈

천상의 벽도는 이슬내린 가을에 알맞고
햇빛에 붉어진 꽃은 구름에 기대어 마름
질된다. 부용은 가을의 강물 위에 나있어
동풍이 오지 않음을 원망한 뒤에 핀다.



조철수
문인화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개인전 12회
문화체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국회의장상 수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운영위원장 역임
나주시 명인 심사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정윤주
서예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한국서예협회 부이사장
경기도 지회장
사임당갤러리 대표
사임당아카데미 운영
서력 48년
개인전



아리랑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을 표현



민족정기
한 민족의 공동의지로서의 바르고 큰 기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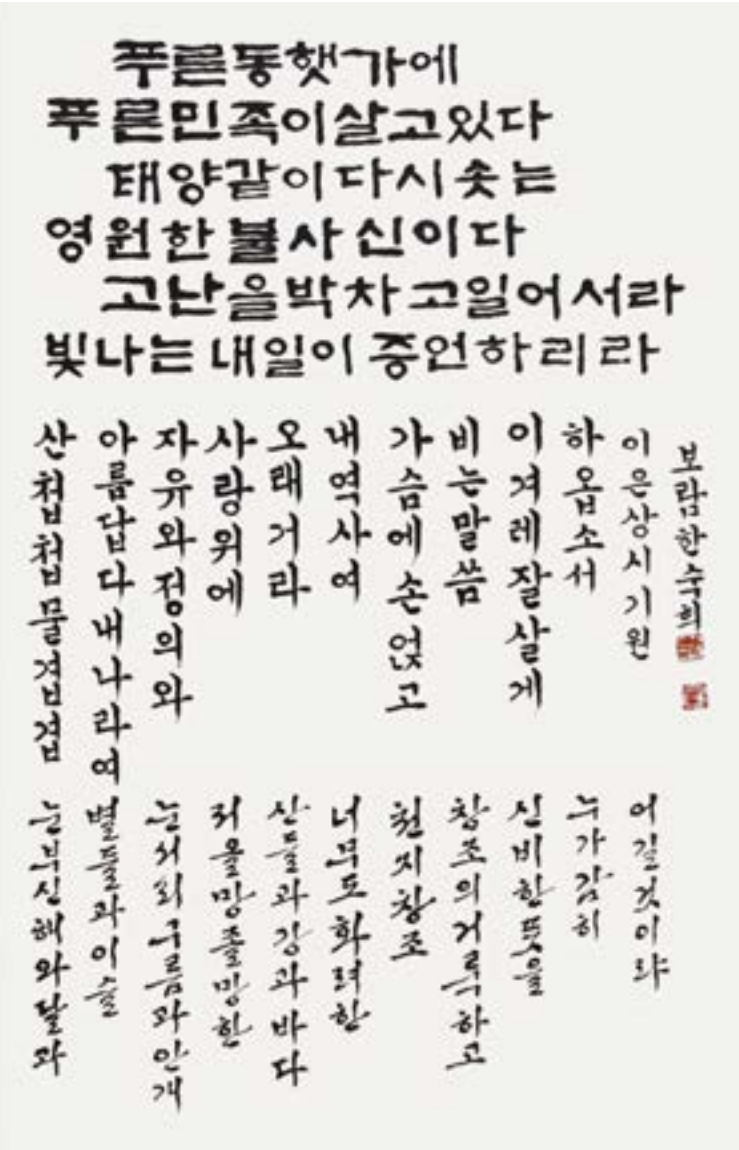


한숙희
서예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미술협회 심사·운영·자문위원
서울미술대상전, 경기미술대전 등 30회 이상 심사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파리 그랑팔레, 우즈베키스탄 등 전시
은평미술상 수상
은평미술협회 고문
2007년 39대 신사임당상 추대
대한민국 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부회장

이은상 시 조국강산

푸른동 햇가에 푸른민족이 살고 있다. 태양같이 다시 솟는 영원한 불사신이다. 고난을 박차고 일어서라. 빛나는 내일이 증언하리라.
산첩첩 물겹겹 아름답다. 내 나라여 자유와 정의와 사랑 위에 오래거라. 내 역사여 가슴에 손 얹고 비는 말씀 이 겨레 잘살게 하옵소서.
눈부신 해와 달과 별들과 이슬, 눈 서리 구름과 안개 저 올망졸망한 산들과 강과 바다 너무도 화려한 천지창조. 창조의 거룩하고 신비한 뜻을 누가 감히 어길 것이라





조인화
서예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한국서예협회 이사
경기여성서우회 회장
대한민국 서예대전 운영·심사위원 역임
개인전(2014 백악미술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 출품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



익호翼虎

顏氏家訓 (안씨가훈)
호랑이에게 날개가 돋침
(용감하고 기세등등한 군사를 칭함)



윤여경
디자인부문 운영위원

작가약력
대진대학교 교수
국내·외 개인전 15회, 협회전 100여회
국내·외 공모전 50여회 입상



유월의 꽃

항상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고 있는 마음을 강대환 님의 유월의 꽃의 시와 디지털 미디어 작품과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변영애
서예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
서울 서예대전 초대작가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
2011 개인전(경인미술관)
세계 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 출품
2017 대만 국부기념관 양문전



진무健武

健武剛強勇武之義也 (진무강강용무지의야)
廣開土大王碑筆 (광개토대왕비필)

진무는 굳세고 강하고 용기 있는 군대라는 뜻으로
광개토대왕비 서체로 쓰다.



서능원

사진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1호 초대작가

사진가연합회 사무국장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창작분과위원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 사진대전 등 다수 입상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 삼결상

2017 개인전, 회원전, 초대전 등 다수



한국의 새

조국의 아름다운 산하!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를 표현하였습니다.



서민희

사진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등 40여회 입상



용사

대한민국 육군의 모습을 한 것으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쳐있을 장병들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고명희

회화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학) 졸업

개인전 8회

초대전 · 단체전 · 국제교류전 등 200여회

아트페어(서울코엑스, 광주비엔날레, 안산예술의전당 등)

호국미술대전 · 대전미술대전 ·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현)한국미술협회회원, 계룡미술협회회원, 대전한국화회원, 예술강사



자연의 숨결 (숫용추)

불청객인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 특히 전방을 지키는 장병들이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애쓰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을 생각
하면서 잠시의 여유와 쉼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와 나뭇잎
들의 잔치가 한창인 아름다운 한여름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미현

회화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대상
한국기독교미술대전 우수·특선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우수·특선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
개인전(평택호미술관·롯데갤러리)
호국미술대전·한국기독교미술 초대작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이 하나 된 평화의 노래



peace rhapsody



문봉식

회화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2019 제주서예대전 입선
2019 통일명인대전 금상·특선
2018 서예 특선
2017 제7회 호국미술대전 대상(대통령상)
2016 남북통일 세계환경예술대전 대상
2015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 대상

‘호랑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범과 늑대 등을 묶어 부르던 말입니다. 호랑이의 순우리말은 ‘범’이지요. 이번 올림픽 선수촌에 걸개그림 ‘범 내려온다’라는 문구가 그래서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이 땅은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문화의 독립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를 범이 감싸 안은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이 땅을 움켜쥔 범의 발톱처럼 우리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고, 범의 줄무늬에 숨은그림찾기처럼 ‘대한민국’ 캘리그래피를 새겨넣어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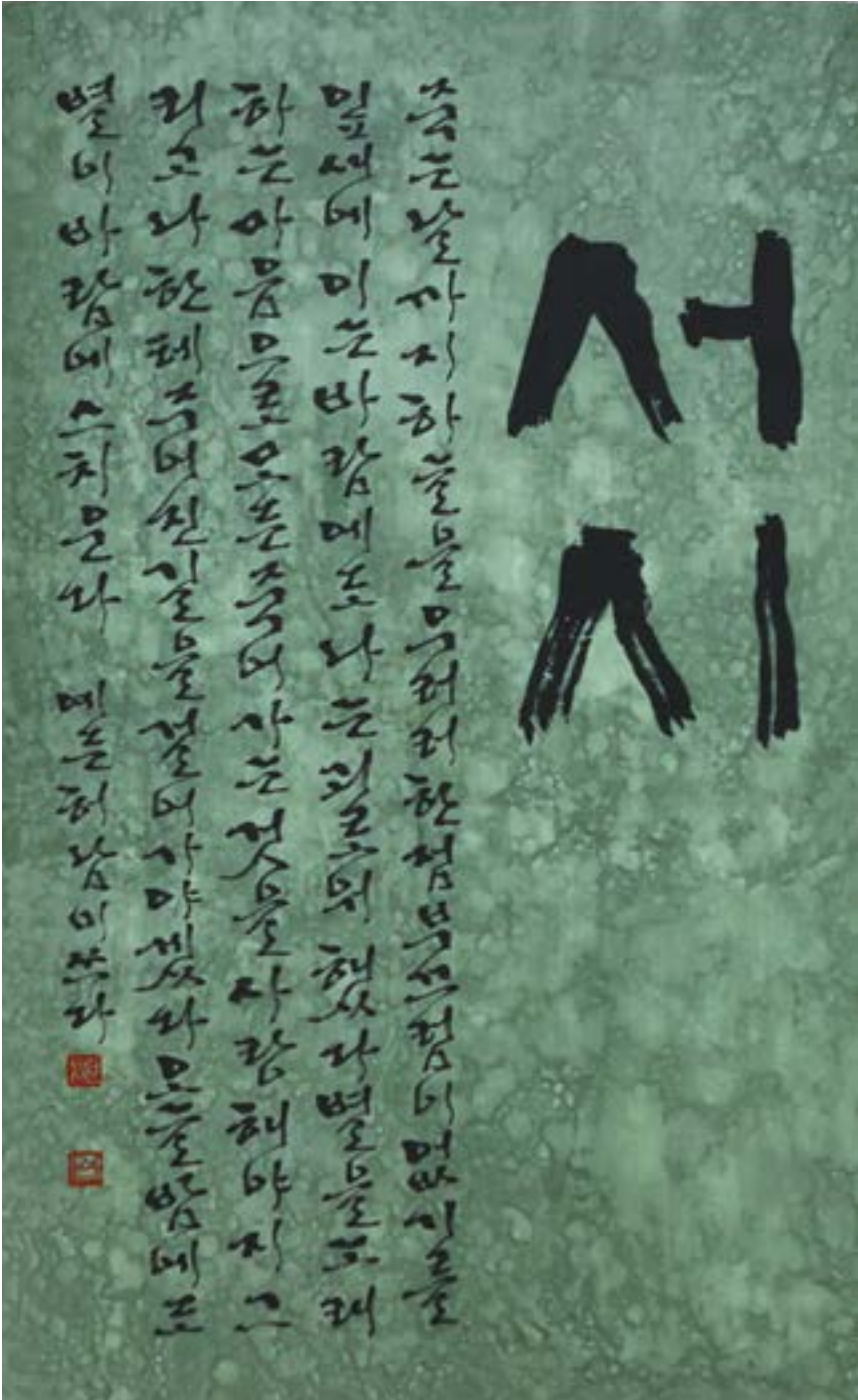


백두산범, 천지를 품다



허남미
서예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 서예대전 · 미술대전 초대작가
개인전 2회, 단체전 70여회
대전 · 경북 · 한마음 미술대전 및 평화통일청소년서예대전 심사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겸손한 의지와 신념으로
민족을 위해 고결한 지성으로
불굴의 절조를 표현하였습니다.



김영필
서예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안중근의사서예대전 운영위원
대한민국 서예술대전 캘리그래피 심사위원
한국서예협회 경기도서예대전 초대작가

상견 시 파산사 뒤의 선원에서
(常建 詩 題破山寺后禪院)

清晨入古寺 (청신입고사) 맑은 새벽 옛 절을 찾아드니
初日照高林 (초일조고림) 떠오르는 해 높은 숲을 비춘다.
曲徑通幽處 (곡경통유처) 구불한 길은 깊은 곳으로 통하고
禪房花木深 (선방화목심) 선방엔 꽃과 나무들 무성하다
山光悅鳥性 (산광열조성) 산빛을 새는 기뻐하고
潭影空人心 (담영공인심) 못에 비친 그림자 사람의 마음을 비워준다
萬籟此俱寂 (만뢰차구적) 삼라만상이 다 고요한 지금
惟餘鐘磬音 (유여종경음) 오직 풍경소리만 남아 들려온다.





신국식

문인화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예술문화원 초대작가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특선

서화동원초대전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여정旅情 - 김시습金時習

나그네 마음 - 김시습金時習

旅情如浪漲昭陽 (여정여랑창소양)

나그네 마음 물결같아, 소양강의 물 불어나듯

無限春愁浩莫量 (무한춘수호막량)

끝없는 봄의 수심, 측량할 수없이 넓고도 크도다

借問白鷗儂可笑 (차문백구농가소)

물노니 흰 갈매기여, 내가 가소롭거니

與他萍草任悠揚 (여타평초임유양)

저 부평초처럼 마음대로 아득히 떠돌아 다니다니



최조영

문인화부문 초대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입선 · 특선 · 우수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추천 · 초대작가전 출품



염원念願

철통같은 국토방위 속에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과
평화정착 및 경제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 하나하나를 쌓아올린다.



김승호
사진부문 추천작가

작가약력
2012 아름다운 우리농어촌 농식품 사진공모전 대상
2015 육군참모총장 감사패
2019 K-water 물사랑 공모전 대상
2020 현 육군훈련소 홍보위원

2015 제35보병사단 50주년 기념사진전 동행(특별기획전)
2018 육군학생군사학교 꿈, 맘, 그리고 빛(특별기획전)
2019 제17회 지상군페스티벌 청춘소환 사진전(특별기획전)



돌격~ 돌격 앞으로!

칠흑 같은 연막을 뚫고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육군 장병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정오철
조소부문 추천작가

작가약력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포천미술협회 전통공예분과장
광주비엔날레전, 포천38로드투게더전

ROKA

나무의 나이테는 전쟁, 가뭄, 홍수, 질병 등 힘들면 나이테가 조금 자라고 평온할 때는 많이 자랍니다. 조각된 나무의 나이테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지며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코로나19로 힘들 때 임관과 동시에 대구 코로나 현장에 투입되어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국민과 함께 한 간호장교들. 간호사관학교의 '살려야한다'라는 돌담처럼 말없이 최선의 다하는 간호장교와 항상 국민과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ROKA를 그렸습니다.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심사평

1차 심사위원장 심사평

먼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코로나 난국 속에서도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개최해 주신 육군본부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크게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교육과 문화예술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가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잔치인 호국미술대전을 매년 중단없이 개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육군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크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출품된 소중한 작품들은 전국에서 추천된 각 분야 전문 심사위원들께서 엄정하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혹여 심사 규정상 안타깝게 입선에 들지 못한 출품작가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천착하시어 내년에는 좋은 결과 얻으시라는 말씀 올립니다.

전국의 호국미술대전 출품작가 여러분!

문화예술의 가치는 소통에 있습니다.

맑은 마음과 깨끗한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과 예술로서 소통하면서 내일은 더욱 소중한 작품으로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차 심사위원장 윤 집 용



2차 심사위원장 심사평

오랜 역사와 권위를 지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매년 역량 있는 작가들이 많이 출품하여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 호국미술대전이 대한민국 중심의 전국 공모전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11회를 맞이하게 된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명실공히 강인한 국방의 정신으로 열과 혼을 담아 출발하였고, 참여한 작가분들의 창작 의욕과 열정, 예술적 표현을 현장에서 눈으로 또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 상황도 분명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고, 대한민국 국방의 발전과 호국미술대전의 더 밝은 미래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각 장르별로 여러 창의적 시도가 특히 돋보였습니다. 내년에도 호국미술대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현대적 기법이 더 많이 표현되도록 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입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호국미술대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작품 세계에 더욱 정진하고 커다란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함께하신 제11회 호국미술대전 조직위원, 운영위원, 심사위원분들과 육군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심사를 통해 호국미술대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의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을 통해 육군이 국민과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멋진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과 호국미술대전의 미래가 더욱 빛날 것을 느껴서 참으로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심사위원장 이 병 국



2021

제11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수상작품 설명

수상작품 설명

대상



회화 부문
함승민

코로나19 속으로

전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에 국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들자 육군은 전시상황이라 여기고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방역을 통해 초기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헌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강철같은 정신력으로 가장 먼저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국민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런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의 모습을 표현 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우수상



회화 부문
고은정

호국의 열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우리나라 역사의 바탕에 존재하기에 현재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 부문
김민지

고맙군! 든든하군!

육군 용사 캐릭터와 호랑이, 수달, 반달가슴곰 캐릭터가 함께 지내는 모습을 이모티콘으로 나타냄으로써 대한 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육군의 역할을 드러냄과 동시에 육군은 항상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사진 부문
권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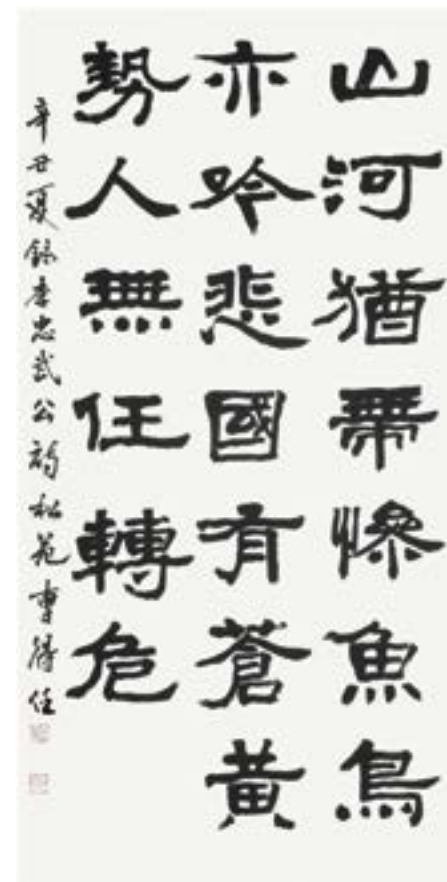
장전

올해 3월 30일, 육군과학화훈련장에서 105mm 곡사포에 훈련탄을 장전하여 대항군에게 사격할 때 포연이 아침 빛에 갈라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실전같은 과학화훈련을 하면서 춥고 힘들었지만, 전우들의 파이팅하는 모습과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빛났던 값진 훈련이었습니다.

조소 부문
김우재

극복의 민족

과거 독립을 외치던 선조들과 현재 코로나19를 이겨내려 노력하는 육군·국민들을 보며 떠오른 대한민국의 '극복의 민족성'을 태극무늬 안에 담으며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서예 부문
조득임

이충무공 시

山河猶帶慘 (산하유대참) 산하는 참담한 띠를 두른 듯하고
魚鳥亦吟悲 (어조역음비) 물고기와 새들마저도 슬픈 노래뿐
國有蒼黃勢 (국유창황세) 나라는 창황한 형세이건만
人無任轉危 (인무임전위) 이 위기를 돌이킬 인물이 없구나



문인화 부문
이미경

이름없는 용사들의 진혼곡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모를 호국영령을 진혼곡으로 세찬 눈보라가 치는 황량한 전선을 표현하였습니다. 후손들은 이 아픔을 영원히 가슴 깊이 새겨, 다시는 반복되는 전쟁의 상처가 없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우수상



회화 부문
강경애

호국영웅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이전에 올라가 읊은 시가 있고, 仁者樂山 仁者臺의 뜻을 따서 붙인 이름이 인수봉이란 유례가 있습니다. 백운대 정상에서 하얀 눈 쌓인 인수봉을 바라보니 봉우리가 탄두와 같고, 그 기상이 마치 장군 같아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호의지를 수목담체에 담았습니다.



회화 부문
민세홍

이어달리기

대한민국의 시간이 지나고 모습이 변해도 애국은 변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으로 지금을 만들어준 과거, 평화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며 신뢰받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를 선배 전우, 군인, 어린이로 표현했으며 강한 애국정신은 세대와 세대로 이어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화 부문
이광용

보루

현역시절 근무했던 동부전선 DMZ와 GP를 극대화하여 국토방위의 최전선을 부각해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 부문
김정민

육군,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육군이 지금껏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을 행진과 축제의 이미지로 표현해 포스터로 제작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육군의 모습을 즐겁고 경쾌한 이미지로 나타내어 국민들이 친밀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반도를 지키고, 무궁화를 가꾸며,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습 등을 통해 육군의 정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 부문
서필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과 의료진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이 시국에 군인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에서 희망, 신뢰, 헌신, 끝없는 사랑과 기적을 느끼며 꽃과 나비에 그 의미를 담아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 부문
전보민

그들의 의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건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 복무하고 있는 저도 그림과 같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총을 들고 전우들과 함께 훈련하는 한 군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좌측에 있는 한자는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 중 하나로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담고 있습니다. 제 디자인을 보는 많은 군인들이 국가를 지킴에 있어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싶었기에 제작하였습니다.



사진 부문
김경호

호국영령을 위한 포성

2021년 6월 6일, 대전 현충원에서 육군 예포대가 예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부문
이희열

강한육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인 장병들의 표정에서 굳건한 의지가 느껴져 촬영하였습니다. ‘강한 육군’은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부문
정국희

애국정신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으로 이룩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 보훈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촬영 하였습니다.

조소 부문
김예지

애국을 가슴에 품고



작품의 군인은 왼쪽 가슴에 새겨진 안중근 의사의 ‘단지 혈연 손자국’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국정신과 살신성인 정신이 깃든 ‘단지 혈연 손자국’을 군인의 왼쪽 가슴(심장)에 새김으로써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군인을 표현하였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소 부문
김한샘

수호守護



우리 국군의 높은 위상을 호랑이라는 수호와 용맹의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 호랑이를 모델링했고, 폴리 코트를 사용하여 캐스팅 작업 후 아크릴로 도색하였습니다. 나무리로 은가루를 사용해 하이라이트를 주었습니다. 단상은 철판에 건곤감리를 새겨 호랑이가 태극기를 수호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호랑이의 근엄한 자태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조소 부문
최윤호

발자취



지난날의 수많은 전투에서 쓰러지신 선배 전우의 유해가 흙에 눌러 자국이 되고, 그 흔적이 점차 군화자국의 형상으로 변하여 오늘날 군인의 발치 앞까지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희생으로부터 거슬러온 발자취를 뒤돌아본 뒤, 눈을 감고 머리 숙여 나라를 수호하다 전사하신 선배전우들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는 오늘날 군인의 모습을 통해 ‘호국 · 보훈 선양으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육군’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서예 부문
김류희

이등병의 편지

故 김광석 가수가 불러 히트되었던 '이등병의 편지'에서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젊은 날의 꿈을 단아한 한글 궁체 흘림체로 표현하였습니다.



서예 부문
성계자

전우가 남긴 한마디

전오승 선생이 6·25전쟁 때 전사한 동생과 순직용사들을 위한 진혼곡으로 지은 노랫말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분들의 열이 지금 우리 가슴에도 살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서예 부문
하인순

채근담

建功立業者 (건공립업자)는
多虛圓之士 (다허원지사)요
愼事失機者 (분사실기자)는
必執拗之人 (필집요지인)이라.

공을 세우고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은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사람이 많고,
일에 실패하고 기회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집착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니라.



문인화 부문
박재형

통일이 오는 그날

꽃이 피는 그날이 오려나, 탱크 앞에서도 꽃은 피는가, 멈춘 탱크여 다시 구를 것인가 그대로 꽃의 영양분이 되어 철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통일이 오는 그날, 못다 핀 꽃들은 웃으리라. 태극기를 구름 마냥 흩날리며 같이 웃어보자꾸나!



문인화 부문
배명자

비핵화속에 평화통일

코로나로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염원하며, 이제는 핵 문제와 대립을 놓아두고 서로 공감하고 그리워하며 68년이 지나 늙고 희미해진 형제들을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문인화 부문
이인숙

포도

여름 되면 시원한 청유막 펼쳐고 가을에는 달콤한 검은 수정을 따듯, 소반 가득 포도를 쌓아놓고 이 무더운 여름 달콤한 향기로 지내고 싶다.

장병우수상



회화 부문
양준혁

회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를 지켜오며 근분을 확립한 이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에 비유하여 한 폭에 조화를 이룬 ‘화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 부문
노기민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새긴
국가방위의 중심군, 대한민국 육군

군인은 평시에 유색 태극기를 패용하고, 전시나 훈련 때는 위장 태극기로 바꿉니다. 이때,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마음에 새기며,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디자인 부문
이현호

잊지 말아야 할,
잊어서는 안되는 그들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정신이 발판이 되어 가능하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장병들도 독립군, 광복군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진 부문
김현우

고지 점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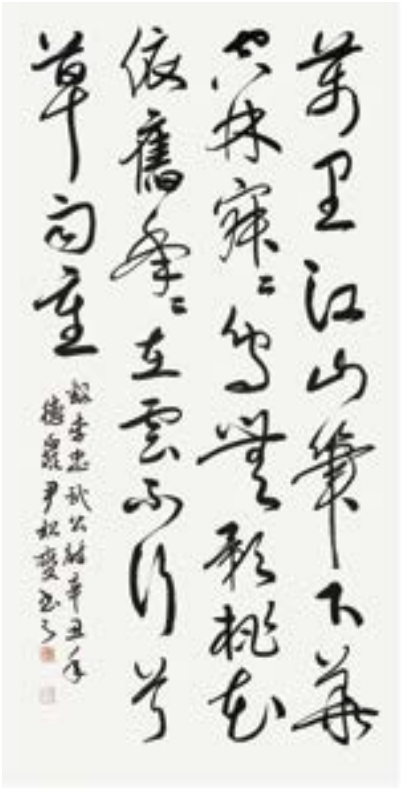
신병교육 기간 중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인 각개전투 훈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훈련만큼은 진심인 MZ세대 군인들의 모습, 시작할 때는 불안하고 경험이 없어 걱정되지만 시작하는 순간엔 눈빛이 달라지고 눈앞에 있는 고지까지 순식간에 뛰어올라 열의 없이 고지를 점령한 강인한 MZ세대 훈련병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조소 부문
강현삼

계승繼承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준 호국영령들을 강인한 호랑이로 표현하여 그들의 의지를 계승해나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예 부문
윤송섭

이충무공 시

임진왜란 당시 왜군 장수인 가토 기요마사의 사단에 모셔져 있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족자에 쓰여져 있는 한시입니다. 왜란으로 피해를진 조선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을 만리강산으로 불렀는데 이순신장군의 기개와 충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이광수 (사)한국미술협회 이사장
김기동 (사)한국서예협회 이사장
김양평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윤희 (사)한국현대디자인협회 회장

운영위원회 회화

박창로 (사)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이사
임미자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정영모 (사)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부이사장
김용모 (사)국제현대예술협회 이사장
서범석 (사)한국예총 대외정책위원장
황제성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전광수 (사)한국미술협회 상임이사
전호성 (사)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장

문인화

박진현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조철수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강종원 한국추사서예대전 자문위원

조소

이경우 공주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남대학교 교수

서예

한숙희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정윤주 (사)한국서예협회 부이사장
조인화 (사)한국서예협회 이사

사진

김춘성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자문위원
강영호 사진작가

디자인

류재홍 신라대학교 교수
윤여경 대진대학교 교수
이석민 (사)대한산업미술가협회 사무총장

심사위원

1차

심사위원장

윤점용

심사위원

회화 문재성 박미숙 임휘삼 이상숙 김미중 유민석 김기택
디자인 윤병권 정재필
조소 이용철 김희양
사진 이종석 김송호
서예 유경희 한규식 윤점용 전한숙
문인화 이재영 이명애 이경재
서예·문인화 감수 손창락

2차

심사위원장

이병국

심사위원

회화 양숙희 임경희 김영순 오평석 이병국 박찬옥 민성동
디자인 이방원 장우린
조소 김병진 권오수
사진 최성용 안태영
서예 김혜옥 서혜경 권용완 김재일 김옥봉
문인화 이연재 김영호 신흥균

추진경과

위촉식·운영위원회의



1차 심사



2차 심사



제11회
대한민국
호국
미술대전

The 11th
KOREA
HOGUK
ART
EXHIBITION

발행인	육군참모총장
발행처	육군본부 공보정훈실 정신전력문화과
발행일	2021. 9. 15.
전시기획	(주)디투씨
디자인	그래픽네트 TEL. 02-338-0801
사무처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호 육군본부 공보정훈실 TEL. 042-550-6531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회와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